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교양 일본어의 신수업 제안

-SNS를 활용한 수업 스타일-

염미란*

(e-mail : ymr5513@hotmail.com)

<目次>

-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구성 |
| 2. 선행연구 및 검토 | 4.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교양 일본어 모의 수업 |
| 3. SNS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설계 | 5. 결론 및 과제 |
| 3.1. 밴드(BAND)의 기능 | |

キーワード：フリップラーニング(Flipped Learning)、バンド(BAND)、教養日本語(Japanese liberal education)、模擬授業(Simulated Instruction)、オンライン授業の構成要素(Component of on-line class)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본어 교육 분야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수 의무가 사라지고¹⁾, 대학에서는 2014년 대학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관련 학과가 통폐합 또는 정원 축소²⁾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 관련 학계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³⁾하고 있다.

*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일본 어학 전공

-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이었던 제2외국어 과목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1년 개편 시행)부터는 「생활·교양」과목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2014년도부터는 한국 정부의 제2외국어 정책 변화로 인하여 제2외국어 과목은 더 이상 이수 의무 과목이 아니다. 채경희(2015)p.228
- 2) 「2014년 대학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문분야의 통폐합 과정에서 특히, 인문학 관련 학과가 구조 조정 대상이 되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본어 관련 학과가 사라진 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앙대, 상명대, 동아대, 대구한의대, 우석대, 건양대 등의 일본어 관련 학과가 학교 내에서 재편되어 통합되었다」 방극철(2016)pp.15~16

2017년 4월 15일, 일본 연구 총연합회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의 일본어 및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기영(부산외대), 羅曉勤(台灣銘傳大學應用日本語學科), 戸田山和久(名古屋大學情報學研究科)의 발표⁴⁾에서는 이들 관련 학과의 서바이벌전략을 소개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통된 논조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대부분이 일본어 비전공자인 대학의 교양 일본어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교양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1)충분하지 못한 수업시수와 어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2)과다한 인원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제도적 변화는 물론 교수자의 개선의지 및 교육 방법의 변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양 일본어의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선행 연구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지적한 교양 일본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방식과 일명 ‘거꾸로 교실’로 잘 알려져 있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방식을 채택하여 교양 일본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스타일을 설계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및 검토

방극철(2015:18)에서는 전공 일본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일본어 교육도 위기로 진단하고 교양 일본어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 <표1>의 6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3) 2016년 9월 24일 한국일본어학회 34회 국제학술발표대회(주제:한국의 일본어교육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한국어 일본어교육의 방향성 모색)/ 2017년 3월 18일 한국일본어학회 35회 국제학술발표대회(주제:한국의 일본어교육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일본어학연구의 방법론 모색)/ 2017년 4월 15일 한국일본어연구총연합회(제6회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한국 일본 관련 학과의 위기와 해법 모색)등.
- 4) 제6회 한국 일본어연구 총연합회 발표 요지문집(2017.04.14~15)pp.19~37

〈표1〉 교양 일본어교육 개선을 위한 6가지 제안

1.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자 중심 학사제도(교육과정) 개편
2. 제2언어 습득 연구의 교양교육 현장에 활용
3. 피어 러닝(Peer learning:동료끼리 협동학습)
/Collaborative learning(협동 학습)의 운용
4.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탐색적 시도
5. 사회언어학·화용론 분야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커리큘럼 편성
6.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 및
SRN(Self Reflection Note)작성

제도적 개편(교육과정, 커리큘럼 편성, 교재 개발 등)이나 학습방법(Peer learning피어 러닝, Collaborative learning협동 학습)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두고, 본 연구에서는 수업설계와 관련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탐색적 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蔡京希(2014)에서는 블랜디드 러닝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Blended learning」とは、混合型学習を意味し、2つ以上の学習方法が結合して行われる学習をいう。一般的にはオンライン学習と対面式学習が混合した学習を指すことが多い。2つ以上の学習方法が持つ長所を結合させ、適切に活用することにより、学習効果の極大化を図った学習形態である。

최근 대학 수업에는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⁵⁾를 활용하거나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원격 강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학에 블랜디드 러닝 방식이 도입되어 강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동엽(2013:84)은 Khan Academy, TED와 같은 교육용 강의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새로운 형태의 블랜디드 러닝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무크(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http://www.kmooc.kr/about>(검색일 : 2017.04.27)

플립드 러닝은 ‘뒤집다’, ‘깜짝 놀라다’의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거꾸로 교실’ 또는 ‘역진행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미래교실네트워크’⁶⁾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교사들의 자료 공유 및 연수 등을 통해 거꾸로 교실의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내용을 학습한 뒤 학교에서는 문제해결 및 토론식 수업의 형태로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융합학습법⁷⁾」이다. 이 방식을 처음 시도했던 존 버그먼, 애론 샘즈(2015:17)는 거꾸로 교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은 동영상으로 마친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교재가 있다면 이 역시 교실에 오기 전에 끝낸다. 이렇게 시간을 맞바꿈으로써 교사는 수업 시간을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해야 하는 활동에 쓰거나, 교사의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할애할 수 있다⁸⁾.

즉, 플립드 러닝은 ‘수업 전에 미리 학습’하고, 본 강의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구성되는 수업방식이다. 이것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방식과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블렌디드 러닝의 보다 구체화된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 방식 속에 블렌디드 러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블렌디드 러닝의 별도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대학의 교양 일본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교양 일본어 수업은 대부분 비전임 교원(시간강사)⁹⁾과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다.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교양 일본어의 학습자는 대부분 일본어 비전공자로 전공자에 비해 ‘강의

6) <https://www.futureclassnet.org/index.do>(검색일 : 2017.04.27)

7) (사)한국U러닝연합회(2014) 『플립러닝의 성공 전략』 (주)콘텐츠미디어 p.7

8) 존버그만 · 애론 샘즈(2015) 『거꾸로 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에듀니트 p.17

9) 「교양 교육은 대부분 대학들이 비전임 교원(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방극철(2016) p.133

몰입도'가 낮다.

2)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학습자는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에서 말하는 '강의 몰입도'라는 것은, 학습자가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강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학습하거나 집중하는 시간이나 정도를 말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양과목에 대한 강의 몰입도는 전공과목에 비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개인의 수강목적에 따라 학습자간의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개별화된 학습 능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에서 언급한 '번거로움과 부담'은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콘텐츠 제작이 간편해야 하고, 학습자의 이용시간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유연하게 활용'¹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SNS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설계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 중 하나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설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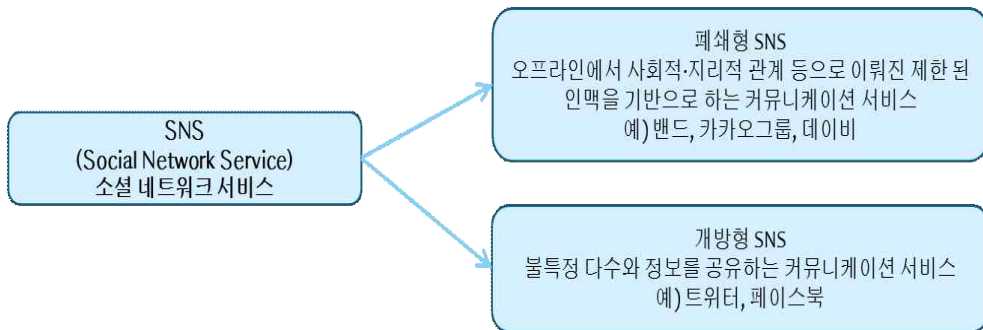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기준 85%로 최고수준(YTN 2017.2.9.)이며, 최근 대학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출결을 하거나 동아리나 학과별 모임

10) 「Hamdan, Mcknight, Mcknight&Arfstrom은 플립드 러닝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유연한 환경, 학습 문화의 변화, 의도된 내용,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중략). 플립드 러닝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이나 학습공간에 대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환경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수는 기존의 정형화된 강의식 수업에 비해 매우 혼돈스럽고 시끄러운 교실수업 환경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동엽(2013)p.87

등의 연락 수단으로 SNS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의든 타의든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SNS는 <그림1> 과 같이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지인의 지인의 정보까지 공유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폐쇄형 SNS는 지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가입자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으로 폐쇄형 SNS인 '밴드(BAND)'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림1> SNS의종류



3.1 밴드(BAND)의 기능

밴드는 2012년 8월 출시된 국내의 대표적 지인 초대 기반의 폐쇄형 SNS¹¹⁾이다. 밴드에 어떤 기능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어학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개설

- ① 관리자가 '직접 만들기'를 통해 밴드를 개설한다.
- ② 밴드 공개 타입(공개/비공개)선택

11) 「네이버의 모바일 자회사 <캠프모바일> 이 출시한 밴드(BAND)는 지난 2012년 8월 출시된 국내의 대표적 지인 초대 기반의 폐쇄형 SNS이다. 현재 168개국에서 2,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모임 수만 800만개에 이른다. 출시 40일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였다」 하정빈(2014)p.63

③ 밴드명 설정

▶ 가입

- ① 초대링크로 지인 초대
- ② 밴드명 검색어로 가입 신청

▶ 글쓰기

- ① ‘글쓰기’에 바로 입력
- ② 파일이나 동영상 첨부
- ③ 인터넷 무료강의의 링크 공유

▶ 댓글쓰기/음성녹음/표정짓기/좋아요

- ① 댓글을 바로 입력
- ② 댓글에 음성녹음
- ③ 다양한 표정의 이모티콘 입력
- ④ 댓글쓰기, 음성녹음, 표정짓기, ‘좋아요’



▶ 그룹 활동

- ① 공개 채팅과 비공개 채팅
- ② 1:1 채팅 및 그룹 채팅
- ③ 채팅방에서 그룹콜(최대 30명까지 참여 가능)로 대화가능

▶ 밴드 통계

날짜별로 접속멤버 및 콘텐츠 작성 멤버의 수, 요일별 활동성, 우수 멤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2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구성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3.1에서 확인한 밴드의 기능을 종합해 보면 <그림2> 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2>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구성의 4단계



첫 번째, 집단 구성의 단계이다. 담당 교수가 밴드를 개설하고 학습자는 링크공유 및 밴드명 검색 등으로 가입한다.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설정해서 학습자의 가입신청을 담당 교수가 수락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집단 구성의 단계는 콘텐츠 제작의 전 단계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나 학습 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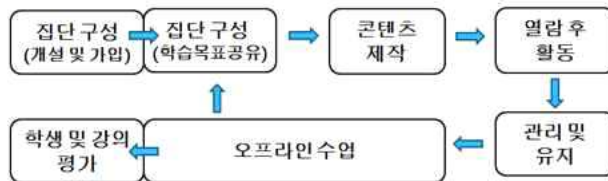
두 번째, 콘텐츠 제작 단계이다.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오프라인 수업의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오프라인과 어떻게 차별화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학습 대상자, 콘텐츠의 내용, 콘텐츠 제공의 수단(파일, 동영상, 바로 입력), 콘텐츠 제공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열람 후 활동이다. 밴드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달기(질문, 의견제시 등), 표정짓기(이모티콘으로 웃거나 울거나 환영 등의 감정을 표현), 음성녹음, ‘좋아요’와 같은 사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열람 후 활동’이라 하겠다. 담당 교수는 콘텐츠 내용에 따라 음성녹음을 남기게 하거나 스마트폰의 일본어 입력기로 댓글을 남기게 하는 등의 간단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고, 학습자는 밴드 내에서 과제이행 및 다양한 열람 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교수는 학습자의 과제이행 결과를 통해 개별적 학습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활동에 열람 후 활동을 다시 이행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열람 후 활동은 대부분 ‘원클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간편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리 및 유지이다. 관리자 및 공동리더는 ‘밴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7일 동안 가입한 멤버, 접속 멤버, 콘텐츠 작성 멤버, 게시된 글, 댓글의 수 등의 통계이다. 학습자들의 반응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수멤버를 칭찬하거나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를 격려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오프라인 수업과의 연계를 상정해 보면 <그림3> 와 같이 집단구성(학습목표공유)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의 순환구조 하나와, 집단구성(개설 및 가입)에서 학생 및 강의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3> 온오프라인 수업의 순환 구조



한 학기 동안 이런 순환구조의 학습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기존 수업의 ‘충분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보완되고, ‘과다한 인원수’로 학습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교양 일본어 모의수업

앞에서 살펴본 플립드 러닝의 핵심 키워드는 '수업 전에 미리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의 <그림3>에서 확인했듯이 온라인 수업의 4가지 구성요소가 오프라인 수업 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이것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어져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플립드 러닝의 실현인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플립드 러닝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실제로 교양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미란쌤과 거꾸로 일본어'라는 밴드를 개설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J대학교 교양 일본어 강의 중에서 ひらがな와 발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초 일본어와 초급 일본어 2곳의 학습자 62명을 대상으로 밴드에 자유롭게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순수한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업에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학습자의 평가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

<그림4> '미란쌤과 거꾸로 일본어' 콘텐츠 내용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는 <그림4>에 첨부한 것처럼 히라가나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나 영화 예고편, 또는 기초문법이나 인사말 등을 주로 제작하였다.

그 결과, 2017년 4월 10일 기준 총 대상자 62명 중에서 26(41.9%)명이 가입하였고, 최근 7일 이용자는 26명의 가입자 중 8명(12.9%)이 접속, 5명(0.8%)이

댓글이나 음성녹음 등의 열람 후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열람 후 활동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내용에 대해 표정짓기나 '좋아요'와 같은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밴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학습자도 볼 수 있었다.

모의수업에 대한 개요는 <표2> 와 같다.

<표2> 모의수업 보고

구분	내용
1) 밴드명	미란 쌤과 거꾸로 일본어
2) 기간	2017년 3월 20일 ~ 4월 10일
3) 대상	J대학교 기초 일본어 / 초급 일본어 ※문자와 발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룹 대상
4) 인원	기초 일본어(42명) / 초급 일본어(20명) 총 62명
5) 참가 인원	(2017.04.10.일 작성) ■26명 가입 (41.9%) ■(최근7일) 8명 접속 (30.8%) ■5명 게시글 (19.2%)
6) 특이사항	①가입 ②댓글/음성/표정짓기/'좋아요'와 같은 열람 후 활동 자유롭게 ①, ②활동하도록 유도

이번 모의수업을 통해 26명(41.9%)의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입한 학습자 중 접속은 8명(30.8%), 게시글은 5명(19.2%)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활동으로 갈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모의수업은 수업 교재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스타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모의수업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같은 교과목 학습자들끼리 집단을 구성하고,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 또 온라인 수업 활동을 평가에 도입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의무화 했을 경우, 이번

수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려고 한다. 이번 모의수업과 다음 모의수업을 비교 분석한다면, ①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도 변화, ②플립드 러닝 도입으로 인한 학습효과 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과제

본 연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본어 교육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써 수업 방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은 온라인 공개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학 수업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고 실천 사례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플립드 러닝이 대학에서의 교양일본어 수업에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실제 모의수업을 통해 실천사례를 보고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비전임 교원(시간강사)과 일본어 비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교양 일본어 수업을 대상으로 한 점, 플립드 러닝(학습자들에게 수업 전에 학습하도록 하는)에 SNS'밴드'를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한 점, 실제 모의 수업을 실시한 점 등이 본 고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폐쇄형 SNS인 '밴드'의 기능을 검토하여 집단구성⇒콘텐츠 제작⇒열람 후 활동⇒관리 및 유지와 같은 온라인 수업의 4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하여 온오프라인의 순환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여 실제 모의수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가입이나 접속에 대해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의 약40%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약 30%가 밴드에 접속하고, 20%미만이 열람 후 활동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밴드'라는 새로운 수업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나 콘텐츠의 이해를 위한 노력은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학습자의 열람 후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과제로 남는다. 구체적으로 콘텐츠의 내용, 콘텐츠 제공의 수단(파일, 동영상, 바로 입력), 콘텐츠

제공의 횟수 등,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 활동을 수업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일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면,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일본어 학습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더불어 교양 일본어 수업개선과 학습 능력 향상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미래교실네트워크 <https://www.futureclassnet.org/index.do>(검색일 : 2016.04.27)
- 방극철(2015) 「대학에서 교양일본어(제2외국어) 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안」 『일본어교육』 74권, pp.15~26.
- 방극철(2016) 「한국 대학 교양 일본어 교육의 질 관리 방안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국제학술대회 발표대회 논문집』 pp.140~142.
- (사)한국U러닝연합회(2014) 『플립러술의 성공전략』 콘텐츠미디어, p.7.
- 이동엽(2013)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권 12호, pp.83~92.
- 존 버그만,애론 샘즈(2015) 『거꾸로 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에듀니티, p.17.
- 제6회 한국 일본연구 총연합회 발표 요지문집(2017.04.14~15), pp.19~37.
- 채경희(2015) 「블렌디드 일본어 교육현장에서의 교수자의 역할」 『日本語教育研究』 第32輯, pp.227~239.
- 하정빈(2014) 「폐쇄형 SNS의 부상과 전망」 『동향과 전망:방송·통신·전파』 통권 제71호, pp.61~69.
- 한국형 무크 K-MOOC 사이트 <http://www.kmooc.kr/about>(검색일 : 2017.04.27)
- 한국일본어학회 34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요지문집(2016.09.24.) 학술대회 주제 인용
- 한국일본어학회 35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요지문집(2017.03.18.) 학술대회 주제 인용
- 蔡京希(2014) 「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を活用した日本語教育-韓国の日本語授業の現状報告をめぐって-」 『日本語教育研究』 第28輯pp.129~143.

논문 투고 일자 : 2017. 04. 27.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要旨＞

フリップトラニングを活用した教養日本語の新授業提案
- SNS 'BAND' を活用したオンライン授業 -

廉美蘭

本稿は、日本語教育が直面している危機を認識し、新しい授業スタイルを提案するものである。研究対象は日本語の非専攻者と非常勤教師中心に構成される教養日本語である。教養日本語は、授業時数が十分ではなく、多人数である問題点が指摘される。本稿ではこの問題点を改善するための新授業スタイルを提案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フリップトラニング方式を採択し、閉鎖型SNSであるバンドを活用することにした。本稿では、'授業の前にあらかじめ学習する'ことをフリップトラニングのキーワードと判断し、バンドを授業の前に学習するオンライン授業の手段として考えた。そして、バンドの機能を検討し、集団の構成、コンテンツ制作、閲覧後の活動、管理及び維持という4つのオンライン授業の構成要素を設定した。実際に、教養日本語の学習者62名を対象に模擬授業を行い、学習者の反応を確認した。今後、オフライン授業との連携や評価方法などを考慮に入れた模擬授業の結果分析が必要であり、学習者の学習意思を促す方策に関するコンテンツ研究にも取り組む必要がある。

New approach to lecture method
Japanese liberal education utilizing flipped learning
-Online courses utilizing 'Band' closed SNS-

Youm, Mi-ran

The following paper discusses the effective way to develop the method of Japanese lecture as liberal education. The main topic is about the lecture system of Japanese liberal education that mostly consists of non-major students and adjunct professors. This study raises a few issues. First, the number of instructional hours are not enough to achieve the topic. Second, there are too many students per a class to manage effectively. In order to develop these issues we suggest a new teaching method. Specifically, we adopt 'flipped learning' and utilize 'Band' based on closed space on a social network services(SNS)

The flipped classroom describes a reversal of traditional teaching where students gain first exposure to new material outside of class. The key is to gain first exposure outside of class and 'Band' is tool of that. In Considering Band's functions, we determine the components of members, contents production, activity and management. This study presents an interesting approach to analyze a data the mock trial instructions that the 62 people attended. There needs to be more explanation on results analysis of mock trials considering related on-line lecture and appropriate evaluate manner and so on. There also needs to be additional research about content production motivating learners.